

>>> 콤텍시스템

끊임없는 기술 개발 ...글로벌 네트워킹 업체로 도약한다



콤텍시스템 부평공장. 연구원들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콤텍시스템(www.comtec.co.kr)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태동기였던 지난 1983년 설립돼 네트워크통합(NI)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서 데이터 통신장비의 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창업 초기부터 모뎀 개발, 기술연구소 설립 등 기술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온 콤텍시스템은 80년대 말 정보통신 기술변화를 선도해 온 금융권의 종합통신망을 성공적으로 구축, 운용함으로써 정보통신 전문업체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력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까다롭다는 금융과 통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콤텍시스템 대방동 본사

뛰어난 기술인력과 전국 네트워크가 최대 강점
콤텍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우수한 기술인

력과 전국 네트워크다. 현재 콤텍은 국내 최대인 19개 지사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 미션 크리티컬한 네트워크 운용을 생명으로 하는 고객들의 압도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카드 등 국내 전 금융권에서 폭넓게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NI업계에서는 드물게 1997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콤텍시스템은 현재 네트워크 사업 이외에 금융솔루션사업, IT 서비스사업, 유통사업, DVR사업, 로또복권 단말사업, 광전송장비사업, 네트워크 장비 개발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KLS(Korea Lottery Service)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한 로또복권 단말사업은 첫째 3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래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 수출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콤텍정보통신(IT서비스), 인센트(금융솔루션), 스펀오컴(네트워크 장비 유통 및 이미지솔루션), 알파인기술투자(벤처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를 통해 종합 정보통신회사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자체 네트워크 장비 개발에 꾸준히 투자 콤텍시스템의 비즈니스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외산 벤더들이 판을 치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네트워크 장비 개발에 매년 꾸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콤텍은 특히 통신사업자의 차세대 수익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FTTH(Fiber to the Home)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 '차세대 통신장비 개발업체'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라는 포부다. 이 회사는 3년 전부터 FTTH 장비를 일본 동경전력에 공급해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향후 3년간 480억원 규모의 PON 장비 공급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 분야에서 앞서 있는 일본에서 인정 받은 것이다. 콤텍은 또한 TDMoIP(Time Division Multiplexing over IP) 기술과, 이를 활용한 패킷 교환망 회선대

행 서비스 장비 등, 통신사업자가 기존 투자를 보호하면서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기술 장비들을 개발해 세계적인 전시회에 소개하는 등 기술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보안 기술력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통합보안솔루션 사업에 본격 진출해 능동화되고 복잡화 된 보안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IT인프라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콤텍시스템의 새로운 포부다. ☒

인터뷰_ 콤텍시스템 남석우 사장



“첨단 통신기술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올해 콤텍시스템의 경영 목표를 소개해 달라.

“지난해 콤텍시스템은 금융·통신·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1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는 기존 연구개발 투자로 만들어진 자사제품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14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최근 직접 개발한 스위치 등이 국내 통신사에 공급되면서 통신 시장에서 입지가 탄탄해지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공을 들여온 IP텔레포니 및 DVR 사업과 보안·FTTH·QoS·금융 등의 솔루션 사업도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해외진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 일본 기업과 3년간 480억원 규모의 FTTH 장비 공급계약을 맺었다. FTTH 시스템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일본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출을 거둬들였으며, 올해 일본에서만 15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 개발한 TDMoIP 게이트웨이는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기대가 크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복권단말 사업은 세르비아에 이미 40억원 규모를 수출했으며, 그리스 Inratol사와 복권용 소인능인기 탑재된 스캐너 모듈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업계 선두기업으로서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밝힌다면

“콤텍은 앞으로 전개될 TPS, BoN 등 차세대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이미 TDMoIP 게이트웨이를 개발했으며, QoS 서비스스위치 장비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한발 앞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해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장을 일구어가겠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다하는 선진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